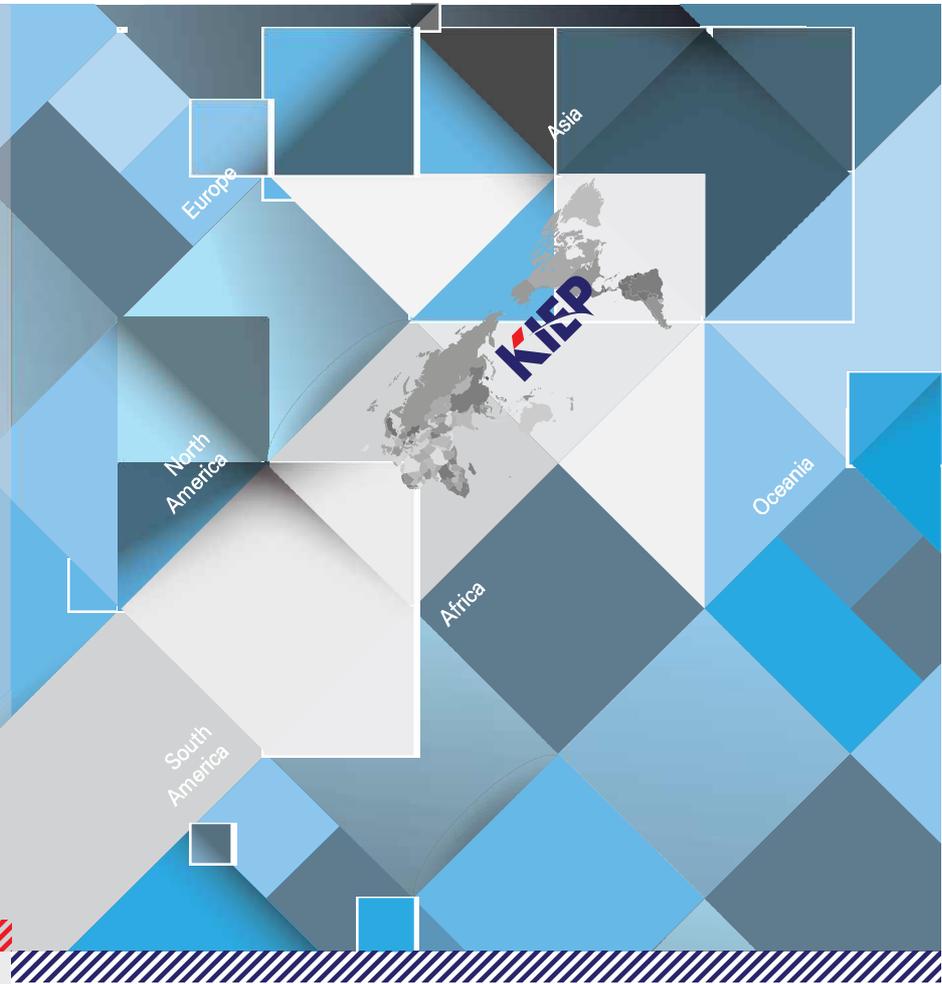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기초자료
18-07

2018년 5월 21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과 시사점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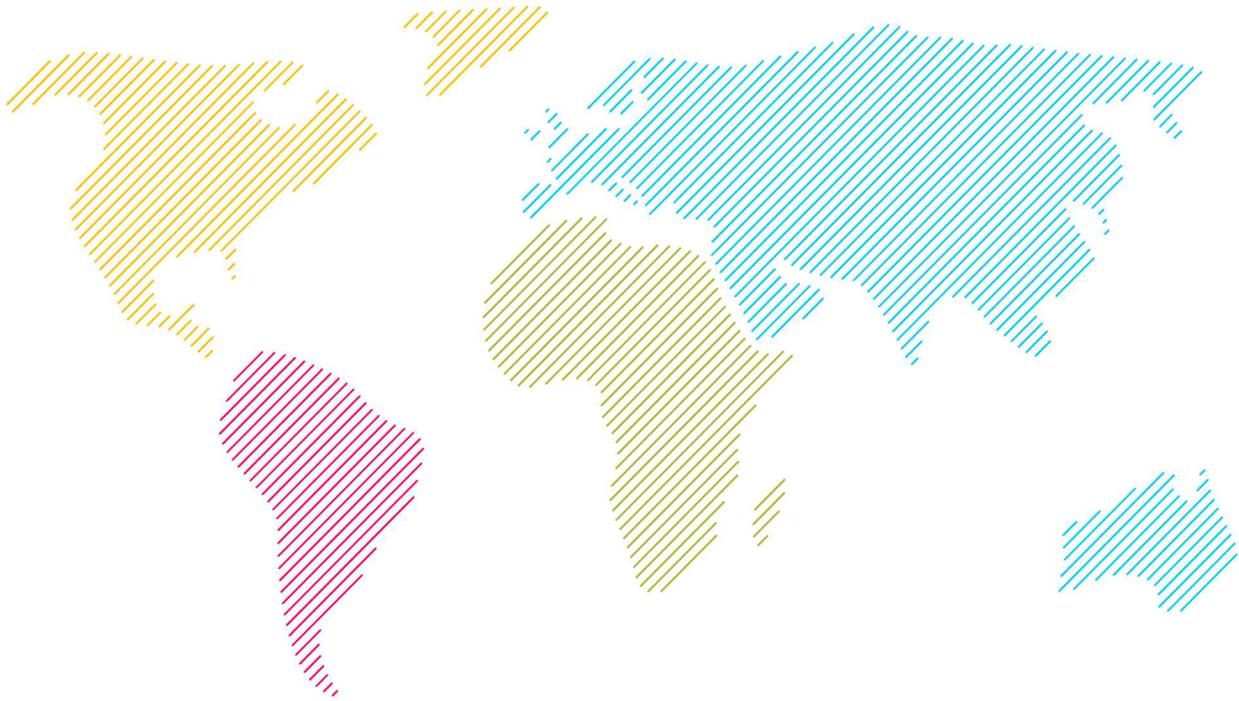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과 시사점

요약

- ▶ 우리나라는 그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기대했으나 중소기업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60.2%, 20.9%였음.
 - 한국은 FTA 국가와의 수출비중이 72.4%(2017년)에 이를 정도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 ▶ 한국과 FTA를 발효 중인 15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FTA 이용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6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반면 EU와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럽지역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증가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FTA를 이용한 시장확대나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으로 2007년부터 FTA를 발효 중이었으나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수 증가속도도 좀 더 빨라짐.
 -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중단 상태 혹은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FTA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FTA 협상 진행 중인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협상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 GCC, 여건 조성 중인 MERCOSUR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중남미와 중동 지역 국가들로 이러한 국가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함.
 -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대기업 72.6%, 중견기업 74.6%, 중소기업 69.5%)에서도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FTA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함.
 - FTA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FTA 협상안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FTA 추진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FTA별 이행위원회나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는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차 례

1. 서론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
 - 가. 전체 현황
 - 나. FTA 발효국별 현황
 3.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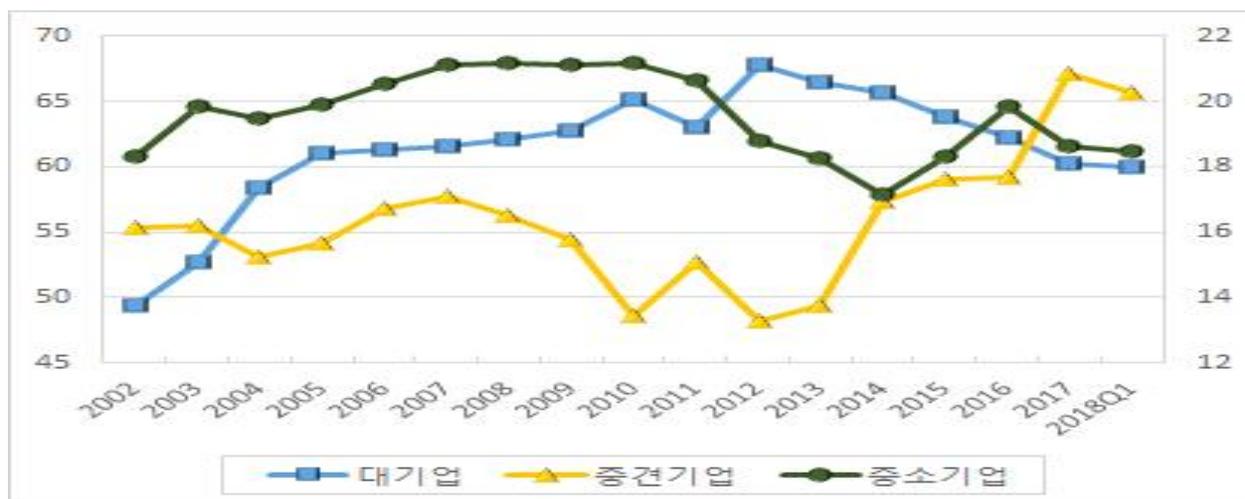
1. 서론

■ 우리나라는 그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과 격차를 둔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¹⁾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 중견기업은 20.9%, 중소기업은 18.6%임.
- 그 밖에 비영리법인 및 개인을 포함하는 기타기업의 수출비중이 0.3%임.
- 2002~2017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2년 67.8%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2013년까지 부침을 반복하면서도 감소 추이를 보였는데 그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에 20%를 돌파함.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2년 18.3%에서 2007년 21.1%로 증가한 뒤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0년대 접어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7%까지 낮아졌으며,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1.2%p 감소함.
- 2018년 1/4분기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20.2%, 중소기업 18.5%로 2017년과 비교하면 모두 약간씩 감소하였는데 대신 기타기업의 비중이 1.3%까지 증가함.²⁾

그림 1.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주: 대기업은 좌축,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우축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1)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 중소벤처기업부(2018, pp. 8~9).

①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함.

② 독립성기준: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2) 다만 2012년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에 기업규모별 분류기준이 종사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뀌는 등 기업분류 기준 및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기타기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2002~17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연평균 수출증가율에서도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0.2%와 10.7%였던 반면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9%에 그침.
- 2002~17년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기타기업의 수출규모가 급감하여 기타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6.7%를 기록했기 때문임.
- 2017년의 수출규모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456억 달러, 중견기업은 전년대비 36.5% 증가한 1,196억 달러였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068억 달러였음.

■ 상대적으로 저조한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하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 2018년 4월 4일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 Korea SMEs Trade Association)'가 공식 출범함.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2017. 7. 26) 후 사단법인 1호로 승인된 KOSTA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중소기업 수출전문 지원기관임.³⁾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충하고자 '무역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동일 유사 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⁴⁾
- 한국무역협회는 2018년 3월 16일 중소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수출현장 멘토링 및 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재 발효 중인 FTA를 보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FTA 국가와의 수출비중이 72.4%에 이를 정도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 중소중견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상기업의 79.2%가 FTA 추진에 따라 경영환경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응답함.⁵⁾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수출 추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상대국과의 수출 현황을 품목수와 원산지증명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전략 및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하에서 살펴볼 FTA 발효국은 15개국(지역)으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임.

3) 『연합뉴스』(2018. 3. 29), 「중기 수출-해외시장 개척 지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출범」.

4) 산업통상자원부(2018), pp. 192~195.

5) 이영주 외(2015), pp. 83~84.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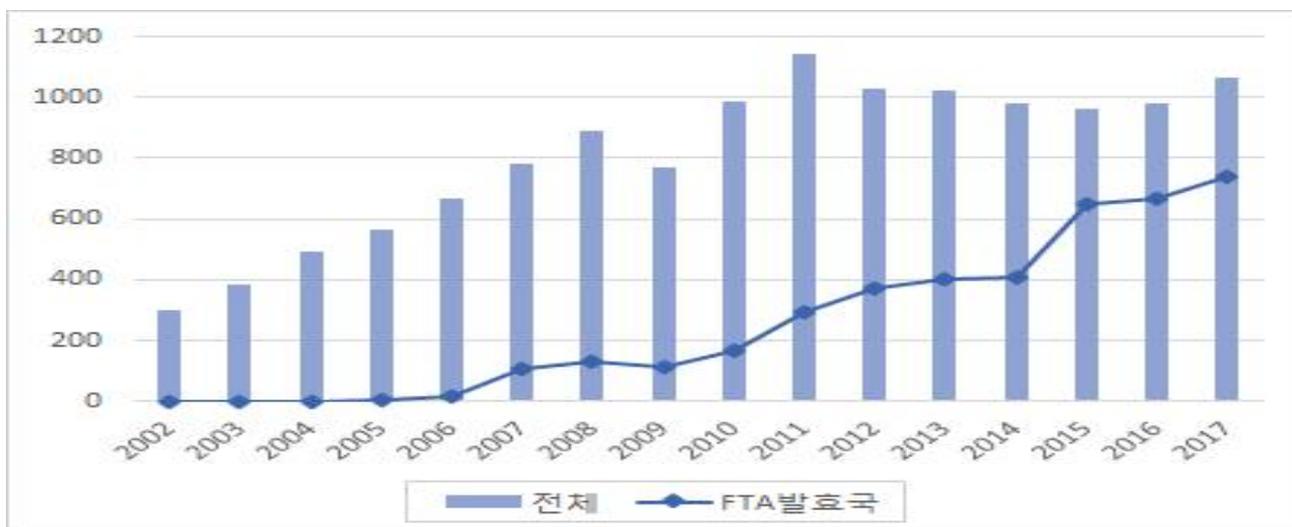
가. 전체 현황

■ 201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68억 달러이며,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742억 달러임.

-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은 2002년 297억 달러에서 2008년 893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1년 1,14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며 2017년 다시 1,000억 달러를 넘어섬.
- 2012~15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1%씩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연평균 1.3%씩 감소함.
-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발효하면서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 ASEAN이 포함되어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후 EU, 미국, 중국과의 FTA가 차례로 발효되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70%에 근접하게 됨.
- 2017년 기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체 수출에서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각각 72.6%와 74.6%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을 통해 볼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11.7%), 미국(11%), 일본(9.3%), 홍콩(4.7%) 순이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 높은 편임.
-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체의 64.5%가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럽과 북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1.6%, 1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음.
- 현재 중소기업의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나 2013년 이후 추이를 보면 유럽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인 반면 북미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라는 점이 다름.
-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중남미보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더 높음.
- 주요 수출상대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2년 17.4%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25.9%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4년부터는 22%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음.
-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2년 2.1%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두 자리 수를 달성함.
- 2002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베트남의 추이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비중은 2002년 13.4%였으나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3년 9.7%, 2017년 9.3%까지 낮아짐.
-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이 급증하기 전까지 홍콩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7%대의 수출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3년부터 5위 수출국이 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상대국 가운데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FTA를 발효 중이며 이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52.7%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주요 수출상대국에 FTA 발효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중소기업의 FTA 이용 수준을 높여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1.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비중 현황

(단위: %)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7
아시아	63.6	62.6	61.2	61.6	61.4	63.3	63.7	64.5	57.1	60.4
중동	7.1	7.7	8.2	7.5	7.2	6.6	6.3	5.7	3.8	4.5
유럽	11.6	12.0	12.5	13.0	12.9	11.0	11.0	11.6	13.0	13.5
북미	10.0	10.4	10.9	10.9	11.9	12.2	12.3	12.1	12.6	14.0
중남미	4.6	4.3	4.5	4.3	3.9	4.4	4.5	4.1	5.1	5.0
아프리카	1.6	1.4	1.3	1.4	1.3	1.2	1.0	0.9	1.6	0.5
대양주	1.5	1.5	1.5	1.3	1.3	1.4	1.2	1.1	6.9	1.9

주: 비중은 기업규모별 전체 수출에서 각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검색일: 2018. 4. 27).

표 2. 2017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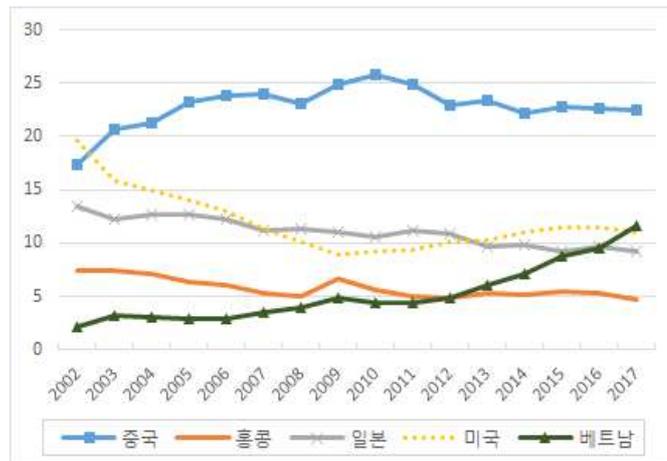
순위	수출상대국	수출액(억 달러)
1	중국	239(22.4%)
2	베트남	125(11.7%)
3	미국	118(11.0%)
4	일본	99(9.3%)
5	홍콩	50(4.7%)
6	인도	31(2.9%)
7	대만	26(2.4%)
8	인도네시아	25(2.4%)
9	태국	25(2.3%)
10	멕시코	21(1.9%)

주: () 안은 2017년 중소기업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그림 3. 중소기업 주요 수출상대국의 연도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나. FTA 발효국별 현황

■ FTA 상대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칠레 수출은 2004년 9천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4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2004년 대비 4.6배 성장)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3억 달러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칠레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선점효과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 역시 주춤한 상황임.
- 대싱가포르 수출은 2006년 11억 4천만 달러에서 부침을 보이면서도 2015년 18억 7천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2016년에는 5억 달러 이상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7년 다시 반등하여 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 EFTA 국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1~2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가 FTA 발효 이후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부터 2억 2천만 달러가량에서 유지됨.
 - 기본적으로 EFTA 국가는 EU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선박, 자동차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대ASEAN 수출은 FTA 발효 해인 2007년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2% 증가하였고 201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까지 연평균 9.5%씩 성장함.
 - 다만 한국의 대ASEAN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직후 30%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이후 25~28%대 사이에서 부침을 보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26억 달러로 전년대비 47%(2009년 17.7억 달러)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 3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7년에는 다시 30억 달러를 넘어섬.

- 현재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보다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EU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은 2011년 96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이후 재정위기 등 유럽의 경제여건 악화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여 2017년에는 8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 중소기업의 대미국 수출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면서 조정국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대터키 수출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약 13억 달러로 증가하여 이듬해까지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12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둔화 시기 이전인 2011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바 최근의 증가세를 FTA의 효과로 단정 지을 수 없음.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7%에서 부침을 보이고 있는바 2000년대의 20%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임.
-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분석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32.4% 증가하면서 1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함.
- 2007년 한·ASEAN FTA 발효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양자 FTA는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임.

표 3.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억 달러)

상대국	2002	2004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칠레	0.5	0.9	1.9	2.4	4.0	4.3	3.8	3.4	2.8	2.9	2.6	2.9
싱가포르	4.5	6.3	11.4	14.0	13.7	16.4	16.0	15.1	13.5	18.7	13.1	14.6
EFTA	0.9	1.3	1.9	2.2	2.6	3.0	2.0	1.8	2.0	2.2	2.2	2.2
ASEAN	28.5	50.2	68.3	86.2	120.0	143.5	141.0	153.3	156.5	165.4	178.5	213.4
인도	2.7	6.2	10.6	16.0	26.1	30.2	25.0	24.1	21.7	21.6	22.3	30.7
EU	30.6	48.1	61.9	77.9	81.1	96.5	80.8	81.6	79.4	75.3	79.1	85.5
페루	0.4	0.6	1.0	1.3	2.1	2.3	2.0	1.8	1.7	1.8	2.0	1.6
미국	58.4	74.0	86.5	88.8	91.3	106.9	103.4	105.3	107.7	110.3	112.4	117.7
터키	2.7	6.3	7.4	8.6	8.8	10.9	10.0	12.9	12.9	11.3	11.2	12.0
호주	3.3	5.6	8.2	9.3	9.6	13.3	11.7	10.2	9.4	9.1	8.4	9.1
캐나다	4.2	5.7	7.3	7.5	7.7	8.5	8.7	8.4	8.6	9.2	8.4	9.3
중국	51.7	105.5	159.3	188.3	254.9	284.7	236.6	239.9	217.5	219.7	222.9	239.4
뉴질랜드	0.8	1.5	1.5	1.9	1.8	2.2	2.3	2.3	2.2	2.1	1.7	1.9
베트남	6.2	14.9	19.8	28.0	44.0	49.6	50.1	61.9	70.3	84.4	94.2	124.7
콜롬비아	0.3	1.0	1.0	1.3	1.9	2.5	2.4	2.1	2.1	2.0	1.9	1.8

주: 1)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의 값임.

2) FTA 발효 이후 기간은 음영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 FTA 발효 이후 각 FTA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에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상대국은 호주이며, 뒤를 이어 캐나다, 칠레,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순임.
- 그간 상대적으로 수출품목이 많지 않았던 중남미와 대양주 지역 시장에 대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한편, 같은 기간 전세계 중소기업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인도, EU, 터키, 중국,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품목수의 증가율은 낮은 편임.
- 전세계 연평균 증가율: 2010~17년 0.9%, 2011~17년 1.2%, 2013~17년 1.8%, 2015~17년 2.0%, 2016~17년 0.9%
- FTA 발효국에 대한 기업규모별 수출품목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견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FTA 발효기간이 가장 긴 칠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칠레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와 같이 FTA 발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가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FTA 발효기간이 짧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더 높았음.⁶⁾
- 그러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높은 FTA 국가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FTA에 따른 시장확대 기회가 수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

표 4.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 현황

상대국	FTA 발효연도	FTA 발효년도 품목수(개)			2017년 품목수(개)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칠레	2004	236	252	829	718	643	1,453	8.9	7.5	4.4
싱가포르	2006	774	883	2,724	1,086	1,805	3,780	3.1	6.7	3.0
EFTA	2006	183	209	1,218	342	485	1,553	5.8	8.0	2.2
ASEAN	2007	1,812	2,046	5,708	3,022	4,365	7,393	5.2	7.9	2.6
인도	2010	1,070	887	3,043	1,227	1,794	3,203	2.0	10.6	0.7
EU	2011	1,933	1,837	4,798	2,171	3,015	5,061	2.0	8.6	0.9
페루	2011	413	171	994	314	511	1,204	-4.5	20.0	3.2
미국	2012	1,959	2,479	5,137	2,133	3,132	5,627	1.7	4.8	1.8
터키	2013	928	657	1,946	727	884	2,030	-5.9	7.7	1.1
호주	2014	989	1,165	2,937	1,092	1,300	3,610	3.4	3.7	7.1
캐나다	2015	817	947	2,444	751	1,052	2,736	-4.1	5.4	5.8
중국	2015	2,820	3,651	6,248	2,603	3,888	6,274	-3.9	3.2	0.2
뉴질랜드	2015	535	568	1,762	490	707	1,903	-4.3	11.6	3.9
베트남	2007	982	876	3,902	2,131	3,280	5,808	8.1	14.1	4.1
	2015	2,084	2,665	5,347				1.1	10.9	4.2
콜롬비아	2016	415	318	1,179	350	381	1,168	-15.7	19.8	-0.9

주: 1)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의 값임.

2) 베트남의 경우 상단은 한·ASEAN FTA 발효연도인 2007년의 수출품목수를, 하단은 한·베트남 FTA 발효연도인 2015년의 수출품목수를 명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6) 다만 2016~17년 기간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전세계 수출품목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FTA 상대국에 대한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역시 감소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캐나다와 중국에 대한 대기업 수출품목수는 각각 연평균 -4.1%와 -3.9% 감소하였으나 이 기간 전세계 수출품목수는 -4.6%로 더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FTA와 대기업 수출품목수 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FTA 발효기간이 길어질수록 각 FTA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2012~17년 기간에 FTA 발효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칠레(2004년 발효)부터 터키(2013년 발효)까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1~2년 사이에 감소세로 전환됨.
 - 위와 같은 추이 변화는 2017년 HS코드 6단위의 전면개정(HS2017)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정으로 변경된 품목번호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기존 품목이 통폐합되고 신산업 관련 품목이 신설(HS코드 10단위 기준 844개 품목 신설, 855개 품목 삭제)되면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상대적으로 최근에 FTA를 발효한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에 대한 수출에서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ASEAN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진 것 역시 베트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FTA 발효국에 대한 기업규모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으로 모든 FTA 상대국에 대하여, 2017년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FTA 상대국에 대하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낮음.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아시아지역의 국가로 ASEAN의 회원국이기도 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FTA 국가들에 대해서는 FTA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5.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발급비중 현황

(단위: %)

FTA 발효국	기업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칠레	대기업	54.3	55.3	56.7	68.3	65.2	40.1
	중견기업	55.9	59.1	53.9	66.5	61.1	38.7
	중소기업	38.4	39.8	39.5	39.4	40.1	36.3
싱가포르	대기업	0.3	0.4	0.4	29.8	35.0	30.8
	중견기업	0.3	0.3	0.2	22.5	23.1	26.7
	중소기업	0.8	0.7	0.7	27.3	32.5	33.5
EFTA	대기업	40.5	40.1	37.8	53.7	48.3	38.3
	중견기업	28.2	39.3	32.9	31.8	31.7	30.2
	중소기업	32.4	32.6	32.7	35.0	32.4	32.1
ASEAN	대기업	6.5	7.0	9.2	36.8	45.0	40.6
	중견기업	3.3	3.9	5.5	30.6	35.8	38.0
	중소기업	4.9	5.8	6.2	32.9	38.1	38.0

7) 기업규모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 미발급 + 미정)인 품목수 대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품목수의 비율로 계산하며, 2017년의 경우 HS코드 6단위가 개정된 상황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미정인 품목수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 미발급) 품목수를 계산식의 분모로 사용함.

FTA 발효국	기업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도	대기업	9.4	12.9	18.8	45.7	55.0	49.4
	중견기업	2.7	9.7	11.0	39.8	49.1	43.7
	중소기업	4.9	6.8	8.4	34.7	41.3	41.1
EU	대기업	45.1	46.7	50.3	62.7	59.2	50.5
	중견기업	38.0	42.4	43.3	51.5	52.5	42.4
	중소기업	38.2	39.5	40.5	43.8	43.1	38.5
페루	대기업	42.6	45.1	43.0	57.5	58.6	46.8
	중견기업	41.5	48.2	33.6	45.3	48.4	39.8
	중소기업	37.1	37.2	40.4	37.7	33.5	29.9
미국	대기업	27.2	41.0	46.8	51.1	49.8	45.9
	중견기업	26.9	43.3	43.3	43.5	40.4	38.2
	중소기업	28.7	42.2	42.2	41.3	41.0	41.2
터키	대기업		29.7	46.2	59.0	59.2	52.7
	중견기업		29.6	46.4	58.9	58.6	43.2
	중소기업		28.5	46.3	51.5	51.7	45.0
호주	대기업			14.5	45.8	45.3	43.0
	중견기업			14.4	49.5	46.8	40.3
	중소기업			10.6	35.9	33.4	34.5
캐나다	대기업				50.1	49.7	49.6
	중견기업				47.4	45.7	37.4
	중소기업				34.8	36.6	36.7
중국	대기업				17.1	38.9	43.3
	중견기업				14.5	35.3	38.9
	중소기업				17.4	37.1	41.9
뉴질랜드	대기업				10.1	31.7	33.7
	중견기업				10.3	29.3	34.6
	중소기업				10.5	26.9	32.1
베트남	대기업	8.2	9.0	9.2	37.1	46.7	42.2
	중견기업	1.4	1.5	4.2	28.5	36.3	38.6
	중소기업	3.4	4.5	5.7	35.1	40.4	43.5
콜롬비아	대기업					22.0	35.7
	중견기업					10.1	17.8
	중소기업					15.5	19.5

주: 빈칸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3.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한국은 중국, 미국, EU를 포함하여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나 중소기업의 FTA 이용정도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음.
 - 2017년 한국의 FTA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72.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EU와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유럽지역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임.
 -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품목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통해 발효 중인 FTA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FTA별 이용수준의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증가율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FTA를 이용한 시장확대나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으로 2007년부터 FTA를 발효 중이었으나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수 증가속도도 좀 더 빨라짐.
 -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상대국 시장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2017)」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응답기업의 50.5%)였고 그 외에도 HS코드(품목번호) 확인, FTA 협정 여부 확인,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 등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음.
-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중단 상태 혹은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FTA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현재 FTA 협상 진행 중인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협상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 걸프협력회의(GCC), 여건 조성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중남미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므로 이러한 국가들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함.
 - 칠레, 페루와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타 FTA 상대국에 비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미지역 국가들로 이루어진 MERCOSUR와의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GCC의 경우 현재 발효 중인 FTA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한국이 조속히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진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2017년 기준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대기업 72.6%, 중견기업 74.6%, 중소기업 69.5%로 FTA 상대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낮은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규모(예컨대 수출액이나 종사자 수 기준)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FTA 협상안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중소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FTA별 이행위원회나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는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3월)
- 이영주, 김수동, 김바우, 한창용. 2015.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체계 구축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5-764.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9월)
- 중소벤처기업부. 2018.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온라인 자료]

- 『연합뉴스』. 2018. 3. 29. 「중기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출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9/0200000000AKR20180329056100030.HTML?input=1195m>
(검색일: 2018. 4. 1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http://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temaList.do>(검색일: 2018. 4. 27).

[DB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